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顯祖實錄探險

임란의병장으로서의 매헌梅軒 권사민權士敏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운공사사람들 저자

매헌(梅軒 權士敏, 1557~1634) 선조는 지난 5백 년간의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살았다.

매헌 선조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 시기는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사화(史禍)까지 겹친 시대였으니 그 시대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매헌 선조는 ‘군사는 하루 한 끼를 먹고 싸움을 해야 하고 굶어 죽은 민초들의 백골이 들끓어 들끓어 왔다’고 임진왜란 실기(實記)에 적었다. 조선인 60만 명이 숨진 왜란 7년을 의병장(義兵將)으로 보내 시고도 선조(宣祖) 임금이 내린 연양현감(彦陽縣監) 인권을 던지고 학문을 닦는 고고한 삶을, 호랑이도 비껴가는 당대의 효손으로 살았다.

의병장 매헌공(梅軒公)은 임진왜란이 발생한 날로부터 제자와 친척 8, 9명이 논의한 자리에서 창의(倡義)를 결정하고 무기와 군량미 확보에 들어갔다. <김갑주金甲周 동국대학교 총장(국사학國史學, 2018년 8월 작고) 저 “조선 후기 경주지역의 사립학동시林活動”에서>
형산강 모전산에서 첫 전투

1592년 봄 임진왜란이 터진 날부터 경산좌도(慶山左道) 불구덩이에 빠졌다. 1만 8천 명의 조선군과 왜적 18만 명의 대결은 결과가 나온 싸움이었다.

당시 조선 집략을 주도한 풍신수길(豊臣秀吉)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군대(전체의 40%)가 빠진 18만 대군을 투입했다.

1592년(선조 25년) 4월 13일 부산포(釜山浦)에 상륙한 왜군이 세 길로 나누어 북상했는데 가토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이끄는 22,800명의 좌로군(左路軍)이 4월 21일 경주성(慶州城)을 무혈점령까지는 단 7일이 걸렸다.

신립(申晸)장군을 탄금대에서 격파한 왜군은 20일 만인 5월 2일 한양을 점령하는 등 조총의 위력 앞에 싸움 한번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조선군은 스스로 무너졌다.

국가 경영엔 무능했지만 현실 파악이 빨랐던 선조(宣祖)는 여자하면 명(明)나라로 튀기 위해 의주행군을 선택, 야반(夜半) 도주 길에 올라 버린다. 설사에 약한 상당수 왜군이 풍토병의 일종인 배양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한양 점령은 이보다 더 빨랐을 것이다. 해상 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왜병(倭兵)이 분풀이처럼 육로에서 펼친 살육전으로 인해 경주와 연양 등 경산좌도의 피해가 더 극심했었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악했었다.

경주성이 무너진 것을 직접 지켜보신 매헌 권사민은 근동에서 가장 빠르게 창의 준비에 들어가 2백 명의 의병을 모았다. 임란 발생 40~50일 사이, 단번에 2백 명이 넘는 의병이 모이기는 7번 훈도의 영향이 컸다.

경주시립도서관에 보존된 경주향도장주(慶州鄕道狀草: 향촌 사회를 장악했던 사립 상서上書) 21쪽에 실린 사적(事蹟)을 그대로 옮기면 근동에서 가장 빠르게 창의, 그해 6월 경주부(慶州府) 안강 모전산(茅田山)에서 첫 전투를 벌였다고 했다.

이 전투에서 북상하는 왜적의 보급선과 왜병을 초멸(剿滅, 적이 가는 길을 끊음)시켰으며 돌아오는 길에도 형강(兄江)의 북쪽 및 월성(月城) 남쪽 모랑(毛良) 동편 숲길 전투에서도 승전을 했다고 기록했다. <乃於壬辰六月戰于茅田山下剿滅賊陣歸戰于兄江之北, 月城之南 毛良之東 諸將聞之稻樞相慶曰 吾屬無患矣: 慶州鄕道狀草에서 拔萃>
 모전산은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현 학

도병 전적비가 세워진 가파른 산이다. 형산강(兄山江)은 국내에서 열 번째로 긴 강으로 소동파(蘇東坡)의 동방 적벽부(赤壁賦)로 불릴 만큼 강 하구로 내려갈수록 강심이 깊고 모전산처럼 속속 솟은 주변산세로 절경을 이룬다. 당시 형산강에 수장된 군량미와 병장기를 의병과 백성들이 건졌다는 기록(경주부의 임진항쟁사)이 남아 있다.

동해남부선 철도와 도로가 된 이 일대 안쪽은 당시 형산강 물길이 굽이치는 험준한 요새 지역이어서 왜병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곳이다. 높이 20여 미터 가파른 절벽에서 돌을 굴리고 화살을 날려 북상을 차단했던 임진왜란 전적지다. 안강역 앞들 지명이 ‘주검들’이 된 이유다. 의병과 왜군이 이 일대에서 혼전을 벌이다 피아간(彼我間) 숨진 시체들이 들을 덮은 그때부터 불려 졌다.

매헌 선조의 당시 나이는 36살. “큰 공을 세웠으면서도 자처하지 않음은 망우당(忘憂堂 郭再祐)과 같고 남보다 먼저 의병을 일으킨 것은 조중봉(重峰 趙憲 1544~1592: 육천에서 임란이 일어났던 4월 하순, 조선에서 가장 먼저 거병,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유학자)과 같다.<충원忠原 박제항 서문>

주역을 끼고 살았던 매헌 선조는 임진왜란이 닥칠 것을 미리 짐작하신 것 같다. 임란이 발생하기 이삼 년 전 태양에 흑성이 든 것을 보고 매우 불길한 징조라면서 집안의 나이 많은 아이들이나 중북을 먼저 훈인시키고 방책을 세우시게 해 주변을 놀라게 한 사실이 ‘매헌실기梅軒實記’에 실려 있다.

팔공산 약암躍巖, 공암대첩公巖大捷
 매헌공의 두 번째 전투는 팔공산을 오르는 약암(躍巖)이었다.

전날 의병을 모으기로 결의한 경주부 선비 8,9명과 안강현 두류동(頭流洞)에 이르러 먼저 부친 귀봉(龜峰) 권덕린(權德麟, 명종 8년 대과급제, 예조 병조 정랑)의 묘소에서 임란창의(壬亂倡義) 사실을 고유(告由, 큰 변이 난 사실을 조상에게 먼저 알리는 행위)하고 자옥산(紫玉山) 중봉에서 새벽을 맞이했다.

이곳에 피난 나온 참봉(參奉) 김예심(金禮心)을 만난 자리에서 의병 계획을 말하니 김참봉(金參奉)이 이르기를 “무엇이 어렵겠소. 공의 두터운 명망은 선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지 오래되니 바로 창의를 하자”고 동의했다. 또 “팔공산(八公山)은 영남의 중심이고 약암은 천해의 요새이니 의병의 근거지로 좋겠다”는 말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창의를 굳혔다고 한다.

계사(癸巳)년(1593) 3월 김참봉과 함께 대구 팔공산 약암으로 오르는 길에 조총으로 무장한 왜구 20여 명을 만났으나 신궁으로 이름난 한 의병이 일곱 명을 쓰러뜨리자 대구 쪽으로 황급히 도망치는 것으로 보고 더는 쫓지 않았다.

매헌 선조는 하양(河陽)에서 도망가는 그곳 좌수(座首, 고을 향직의 우두머리)를 참(斬)한 사실을 보면 임란 초기 의병장의 단호함과 기개(氣概)가 짐작이 된다. 팔공산 약암 도차 즉시 개울 험준한 곳에다 터를 닦고 흥해, 영천, 영일, 영해, 경산, 자인 등에 통문(계사년 3월 1593)을 보내니 2백여 명의 의병이 모였다.

세 번째 전투는 왜적의 팔공산 약암 길과 소공암 술상 전투다. 당시 조총으로 무장한 왜구의 주력부대는 이미 조령을 넘어 터. 주로 보급을 맡은 왜적을 상대로 지형 지세를 이용한 야간작전을 많이 썼다. 하루는 팔공산 약암길 길목에 백여 명을 매복시켜두고 왜군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이게 해 지친 적을 가볍게 제압했다.

어느 날은 소공암 들판에서 진을 치고 왜병 3, 4백 명을 공암(公巖)으로 유인, 농민들로 위장한 의병들이 내주는 술을 마시고 취한 현장을 덮쳐 단숨에 백여 명의 수급(首級)을 베는 기발한 기습작전으로 창의 이래 가장 큰 전승을 거둔 적도 있었다. 팔공산 진중(陣中)에 양식이 떨어졌다. 당시 집안 살림이 비교적 넉넉했던 김참봉은 안강현 자옥산(紫玉山)에 갈무리해

둔 백여 섬을 즉시 내놓았고 매헌공 역시 두류에 비축해둔 쌀 백여 섬을 옮겨 군량미를 확보하는 한편으로는 팔공산 일대에서 군수품을 싣고 북상하는 적의 요를 막았다.

망우당忘憂堂과 합류, 도체찰사 서애 유성룡으로부터 격려 글을 받다

1594년(선조 27년) 경산좌도에서 기세를 떨친 망우당 관재우(郭재우) 대규모 작전을 펴기로 결심하고 망우당의 본진이 있는 창녕 정암진(鼎巖津, 부곡)으로 옮겨 의병진을 구축했다. 이때부터 부산포 근거지를 중심으로 군수품을 싣고 나르거나 백성을 괴롭히는 왜적과의 싸움이 이어졌다.

매헌공은 화왕산성(火旺山城) 관재우(郭再祐) 군진에서 다른 의병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작전계획(奇功異蹟)을 내어 왜적을 공격하니 그때마다 세운 전공이 뛰어나 당시 도체찰사(都體察使)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이 직접 쓴 격려 서신(書信)을 여러 차례 받았다.(망우당실기忘憂堂實記에서)

매헌공의 군세가 엄숙하고 의기가 넘치는 것을 본 관재우는 “권의사(權義士)가 오니 모든 적들이 호구(虎口)에 들어간 것 같다. 오직 진실한 의병이다”고 말한 내용 역시 망우당기(忘憂堂記)에 남아 있다. 삼가(三嘉, 지금의 합천) 출신 권양(權養) 의병(宜寧) 심대생(沈大生)이 좌우익(左右翼)이 되어서 부산, 울산, 연양을 근거지로 삼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왜적을 소탕하는 데 큰 공군(軍功)을 여러 차례 세웠다고도 적었다.

<화왕산화맹火旺山會盟>에선 매헌공의 전략은 경남 화왕산 전투에서 가장 빛났다. 승유년 4월 왜적의 재침범으로 남해의 수군이 격파되고 왜의 선봉이 영남우도 길을 선택하면서 길목에 위치한 화왕산성은 낙동강의 전략적 새 요새지(要塞地)로 바뀌게 되 영남 의병들이 이곳으로 집결했었다.

관재우 장군은 승전한 화왕산 전투는 매헌 권사민공(權士敏公)의 작전계획이었고 또 차례차례 적었다. 1594년 홍의장군(紅衣將軍) 관재우는 “적이 밀어닥칠 때 누가 피하지 않으리오 만은 권공(權公)은 더 떨치고 일어나 싸웠으니 참으로 의병장이라 이를 만하다”고 격찬(激讚)했다.(망우당기忘憂堂記)

망우당 관재우는 자신이 일기형식으로 직접 지은 “망우당실기(忘憂堂實記)”에서 “매헌공은 왜란이 끝나고는 고향에 가서는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녹훈(錄勳)에 빠지게 되었고 세상에도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몇 차례나 적었다. “선생여권사민(先生與權士敏) 절불헌괴요공(絶不獻穢要功)”

매헌공이 관재우에게 “명(明)의 원병이 이리니 왜적의 형세는 대나무 쪼개지듯이 밀리고 있지만 아직도 별 개미 때 형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곧 나라의 남문(南門) 격인 화왕산성을 지킨다면 명(明)의 원병이 돌아가도 왜적이 창칼하는 것을 대비할 수 있으니 저도 따르겠습니다.

또 갈대 싹을 쫓아 왜구에 물리면 불을 쫓아 스스로 자진하는 것을 맹세하면 어 땡겠습니까?”하니 망우당이 “공의 충의(忠義)는 훌륭했고 다시 계책을 듣고 보니 시원스럽게 깨닫겼구요!” 답하고 화왕산성으로 군을 몰아 들어가니 성안 사람들이 마치 부모를 모시는 것같이 맞이했다고 적혀 있다.

작전계획을 낸 장수답게 공이 이끄는 의병군의 군공이 가장 돋보여서 선조 임금으로부터 이 시기 연양 현감을 제수받았으나 “나의 창의가 결코 벼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상소를 올리고 벼슬길에 나가시지 않았다.

“안동인 좌랑(佐郎) 김양근(金養根)”이란 사적지(史跡記)에서도 “권공(權公)의 창의(倡義)로 영남의 70고을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술한 백성이 그 공렬(功烈)을 입었다”고 기록했으며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권상임(權相一)은 이 보다 더 상세하게 적었다.

<2월호에서 계속>

조선 최고의 호조판서 권이진

조선 봉당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놀라운 흔맥! 격심한 당쟁 속에서 의연히 실사구시 관인의 길을 간 권이진의 삶

권선준 <조선 최고의 호조판서 권이진> 저자

“근세에 권이진이 호조에 있으면서 재화를 잘 다스렸다는 것으로 최고의 칭예를 얻었다” -<조선왕조실록>
 “군비가 증가하여 지출도 많아졌지만 쓰고 남은 것이 산처럼 쌓였네. 나라가 지금 영원히 힘입을 곳은 오로지 경의 역량뿐이네” -영조 치제문(남태제 지음)
 “공께서 40여 년 전에 호조판서를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린 법과 시행했던 일들이 혁혁하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니” -번암 채제공
 “직임을 그만두고 나서 여론이 칭송하였으며, 사람들이 정(鄭)나라의 자산(子產)에 비유하였다” -성호 이익

역사인물 발굴 : 조선 최고의 재정 행정가 권이진

오늘의 우리에게 귀감이 될 새로운 역사인물을 발굴 소개한다. 조선 영조 때 호조판서를 지낸 유희당(有懷堂) 권이진(權以鎭)이다.

원광대 유명종 교수는 “성호 이익이 묘지명을 짓고 번암 채제공이 시장을 올린 것으로 보아 그의 학풍과 사상이 유학사상사 전회(轉回)의 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학자로서 권이진을 높이 평가하였다. 하지만 권이진이 더욱 주목되는 점은 우리 역사에서 극히 드문 뛰어난 행정가, 실사구시 관인으로서의 면모다.

권이진은 2년밖에 안 되는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곳곳을 가득 채우는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영조도 그를 최고의 호조판서로 인정하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두 차례 전쟁과 기후재해도 황폐화되었던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는 있었지만 지속되는 비리와 부실한 재정 관리로 인해 당시 국가재정은 파탄 직전이었다. 권이진이 얼마나 재정 건실화에 노력했는지는 영조가 사랑스런 응주에게 은수발을 선물하려 한 것까지 명분 없는 지출이라며 완강히 반대한 예피소드에서 일단 알 수 있다. 권이진은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원칙을 수립하고, 낭비를 줄이고,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개혁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훗날 정조의 개혁정치를 보좌하며 최고의 영의정으로 칭송된 채제공은 자신이 호조판서를 맡게 되자 조정의 경제부들이 서로 “그대가 반드시 권판서와 같기를 바라오”라고 했으며 “공께서 40여 년 전에 호조판서를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린 법과 시행했던 일들이 혁혁하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회고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도 흥미로운 기록이 실려 있다. 탐관오리의 비리를 징치한 것으로 유명한 어사 박문수가 호조판서를 맡았을 때 좋은 평판을 받았으나 권이진이 호조에 있으면서 재화를 잘 다스린 것으로 최고의 칭예를 얻은 것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대목이다.

권이진의 정책을 면밀히 연구한 역사학자들도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 충남대 성봉헌 교수는 <유희당 권이진의 호조재정 확보책>이라는 논문에서 ‘권이진을 조선 최고의 호조판서로 평가하였으며, 김준식 연세대 교수도 권이진이 ‘그 시기 재정운용의 최고 능력가라는 평판’을 얻었다고 평했다.

조선 봉당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흥미로운 흔맥! 노론 영수 송시열, 소론 영수 윤증, ‘사문난적’ 남인 대표 윤희, 대표적 남인 산림 권씨는 인척

노론이 주도하던 당시 정치구도에서 권이진은 극소수파인 남인 출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호조판서로 전격 발탁된 데는 무엇보다 그의 탁월한 능력과 정교에 휘둘리지 않고 실사구시적 옹골음을 추구하던 인품됨이 영조의 눈에 띄었기 때문일 것이다.

권이진 집안의 흔맥 및 그에서 파생한 인간관계는 조선 봉당사를 통틀어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하다. 그의 외조부

재안파총회장친목회 제25차 회의 신임 회장 선출

재안파총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주연) 제25차 격월제 회의가 11월 22일 오후 5시 안동시 안기천로127(평화동) ‘안동면옥’에서 회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권주연 회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권기호, 권숙동 등 세고문, 권영건 전 부회장공파회장, 권세목 전 북야공파회장, 권경호 동정공파회장, 권오준 전 부정공파회장, 권중근 시중공파회장, 권오의 대중회 안동사무국장, 권기영 사무국장 등 11명이다.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권영택 전 정조공파회장 등 2명은 개인 불일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기영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주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 그동안 회원들이 도와준 덕분에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또 시조 묘소 춘, 추항사 때 파총회장친목회 명의의 성금 10만원씩 찬조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임 파총회장 두 분이 회장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회원의회 가입여부 의사를 문의, 결과에 따라 결정 짓기로 하였다.



2025년 친목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 회장은 나이 순서에 따라 권숙동 전 안동총회회장을 선임하고 권기영 사무국장을 유임시켰다. 권숙동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들 간 서로 화합, 단결, 건강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자”고 당부했다. 파총회장친목회는 두 달에 한 번씩

격월제 흡수 달 넷째 주 금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 이날 권오의 대중회 사무국장은 지난 번 시조 묘소 추항제 때 기증한 타월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이날 회원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갈비탕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